

▶ '2017 전주 세계소리축제' 주제 포스터 공개... '때깔 나는 소리'

# 전통을 현대적인 문화콘텐츠로 승화

2017 전주 세계소리축제(9월 20~24일)의 주제 및 공식포스터가 공개됐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Color of Sori(때깔 나는 소리)'는 소리의 스펙트럼을 넓혀 전통을 최대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승화하겠다는 비전을 주제로 하고 있다.

소리축제 관계자는 "올해 축제의 주제는 그간 소리축제가 보여준 전통을 통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합의와 지향을 담고 있다"며 "귀로 듣는 소리에서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소리로, 익숙한 소리·음악에서 낯설고 생소하고 호기심어린 소리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며 소리의 스펙트럼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터는 이러한 주제의식과 지향을 충실히 녹여내는 동시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의식을 최대한으로 전달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포스터는 음악의 모티브를 접과 오선 그리고 이들의 무한 확장을 면으로 규정하



고, 여기에 다양한 색깔을 입혀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했다. 또한 대비 효과가 뚜렷한 보라색과 베

지색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Color of Sori'가 안겨주는 역동성과 변화무쌍함을 강조하기 위해 두 개의 그래픽을 한 쌍으로 포

조직위 "다양한 실험·시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뜻 듣기에서 체험하는 소리로 장르 아우르며 스펙트럼 넓힐 것"

포스터, 대비효과 뚜렷한 보라색·베이지색이 배경 두 개의 그래픽 한쌍으로

◀ '2017 세계소리축제' 포스터

스터에 담았다. 이를 통해 축제의 주제성과 이미지를 새롭고 강렬하게 각인시키고자 했다. /정해은 기자

▶▶ 공연 전시 ◀◀



## 동서양 판타지 결합 반전 피하다

국립전주박물관, 가족 마당극 '용을 쫓는 사냥꾼' 17일 공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6월 야간개장 문화공연으로 '용을 쫓는 사냥꾼'을 오는 17일 오후 6시 박물관 강당에서 선보인다.

가족 마당극 '용을 쫓는 사냥꾼'은 용을 사냥하여 팔자를 고치고자 하는 사냥꾼들과 마을의 수호신으로 마을사람들을 지키려는 수호용의 쫓고 쫓기는 관계를 유쾌하고 해학적으로 그린다. 여기에 서양의 드래곤을 등장시켜 동서양의 동화적 판타지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반전과 색다른 재미를 꾀했다.

공연은 전통연희에 년버벌·뮤지컬·인형극 등의 표현방식을 활용한 '국악연희뮤지컬'로서 유쾌하고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극은 소고놀이와 북놀이·쇠놀이·설장구·바나놀이·기잡놀이 등 전통연희와 기예들로 구성되어 박진감을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만두레와 장원례·달구방아 등 잊혀져가는 민속적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노년층에게는 추억을 선사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

한편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6월 테마별 가족 영화로는 영화 '천국의 아이들'(10일), 영화 '가족'(24일)이 오후 6시 문화사랑방에서 상영된다. /정해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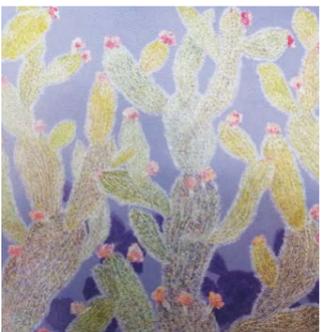
## '자연', 회화적인 언어로 표출

누벨백 미술관서 국승선 개인전

자연을 의인화한 작품을 선보이는 국승선 화백의 개인전이 누벨백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국승선 화백은 자신이 겪고 더듬은 자연에서 모티브를 찾고 이를 회화적 언어로 표출해 낸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뜨겁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피어나

는 선인장과 맨드라미 연작을 통해 좋은 날에 대한 기다림과 희망을 야기한다. 화백은 '선인장 연작'에서 아픈 기억에 찔려 상처 난 가슴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작가의 인생을 담아낸다. 작가는 "건조한 환경에서 수분의 손실을 최대한 막고 살아가야 하는 선인장은 가시 형태의 잎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이렇게 열사의 사막에서 생존하는 선인장의 모습은 작가의 마음과 잊날아 있다"며 이를 회화화 했다

고 한다. 또한 "여름철 작열하는 태양아래서 곳곳 피고,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까지 자태를 유지하는 맨드라미의 생태적 특질은 자신의 삶을 대변한다"고 말하는 화백은 '맨드라미 연작'을 통해 회화의 상상력과 재담을 펼쳐 보인다.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전시에선 옥정호 근처 벚꽃나무의 이미지를 표현한 꽃눈 날리는 '산 벚꽃 연작'이나 석양녘의 태양빛에 황금빛을 머금은 섬진강의 수목을 그린 보리톤의 '나무 연작'도 만나 볼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일제강점기 서민들의 힘겨운 삶, 연극무대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930 그 시절' 매주 토요일마다 박물관 3층 근대생활관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운영을 위해 일제강점기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연극을 박물관 3층 근대생활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와 2시(2회)에 걸쳐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근대역사박물관의 연극 공연은 2012년부터 추진 해왔던 박물관의 대표문화 공연으로 박물관 시민 자원봉사단체인 시간여행팀(회장 박인숙)의 참여로, 창단 이후 박물관과 벨트화지역에서 공연하면서 큰 호응을 얻어왔으며, 올해에는 '1930 그 시절(연출 조미희)'이라는 제목으로 관람객들과 만나고 있다.

'1930 그 시절'은 단순히 보는 연극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배우와 관객이 함께 193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형식으로 펼쳐지며, 채만식의 소설 타류를 기반으로 '미두장이아기'와 '군산항 위안부 이야기' 그리고 '3·5만세운동'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어 20분간 수필과 저항의 근대 군산 역사를 돌아보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의 대표 볼거리인 연극 '1930 그 시절'은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관람객들과 함께 만드는 문화공연으로써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박물관을 찾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근대 역사교육



의 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각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작년 한 해 동안 100만 여명이 방문했고, 30여 회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해 살아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매월 평균 8만 여명이 방문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장현기자

## 전북 교사극단 '드르륵', 학폭 주제 공연준비 한창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극단이 학교폭력을 주제로 공연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북교사극단 드르륵(회장 정명진 육산초 교사)은 학교폭력 문제를 주제로 하는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를 8월 중순 연극공연으로 목표로 연습에 들어갔다.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일본 고등학교 교사인 원작자가 여중학교에서 벌어진 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가해와 은폐 등을 둘러싼 줄거리로 일본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교사극단 드르륵은 정명진 회장이 가상의 도시 연주시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뤄 런닝타임 90분의 연극 공연으로 각색했다. 이들 교사는 방과후시간과 주말을 이용, 연습을 거친 뒤에 오는 8월 18일, 19일, 20일에 전주 경원동 소재 소극장 관에서 공연을 올릴 예정. 드르륵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소리를 나타낸다. /정해은 기자

## 덕진구, 23일까지 '감성으로 다가오는 그윽한 목향'

전주시 덕진구는 8일부터 23일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사회작품 전시회 '감성으로 다가오는 그윽한 목향'을 로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감성으로 다가오는 그윽한 목향'은 인후3동을 비롯한 덕진구 관내 7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예교실과 문인회반, 수묵화교실의 회원들의 정성과 노력이 깃든 7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로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회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들의 품으로든 여가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청소년이 아름답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 제7회 전국형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2017년 6월 10일(토) 오후 4시  
장소: 전주 풍남문 광장

| 주 최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 공동주관 : 전주매일신문사,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 후 원 : 전주시  
| 대회문의 : 063) 288-9700